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5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6월 1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임단투 승리!

지부 총파업으로 돌파합시다!

지부교섭 결렬

6월 15일(목) 10차 지부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됐다. 지부는 진전이 없는 교섭에 2주간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사용자측에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을 주고 진전된 제시안을 마련해서 7월 초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10차례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의 제시안은 단 2번 나왔다. 그마저도 논의할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임단투 승리!

올해 지부는 노조파괴 사업장의 기나긴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 투쟁도 벌이고 있다. 복수노조법이 노조파괴에 악용되면서 소수노조가 된 민주노조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유성, 엔텍, 보쉬전장, 콘티넨탈, 한국타이어, 현대성우메탈지부 등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부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창구단일화 폐

기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임단협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제시안 한 번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부는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해 7월 초 위력적인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 날, 한 시에, 한 뜻으로!

노조파괴-복수노조 사업장의 투쟁 승리와 2017 임단투 승리를 위해 지부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전 지회의 전 조합원이 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작년에 확인했다.

올해도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을 보여야 한다.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위력적인 총파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강력한 파업으로 힘을 모으자. 17만 금속노조의 총파업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 금속노조 및 지부 투쟁 일정 ◆

- △ 쟁의대책위원회 전환 : 6/19(월) 중앙위원회 결정 이후
- △ 쟁의 조정신청 : 6/22(목) <전체 사업장 일괄 신청>
- △ 쟁의행위 찬반투표 : 6/27(화) 0시 ~ 29일(목) 18시
- △ 지부 현장순회 : 6/20(화) ~ 29(목)



콘티넨탈 해고자 복직 합의!

2012년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돼 5년동안 고통받았던 콘티넨탈의 김종원, 박윤종 동지의 복직이 결정됐다. 콘티넨탈지회와 회사는 두 동지의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 김종원 동지는 7월 1일부로, 박윤종 동지는 지부 사무국장 임기를 고려해 10월 1일부로 복직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반복됐던 복직 후 재징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직이 결정된 두 동지는 16일 현장을 돌며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눴다.

지회는 해고자 복직과 함께 그동안 교섭 중이던 2012년 단체교섭, 2013년 임금교섭도 합의에 이르렀다. 사측이 계속해서 어용노조에게 지급한 타결금을 차별하려 했지만, 결국 차별없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자본이 복수노조 상황에서 임금 차별로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이번주 일정 *

- 현대성우메탈 부당징계 구제신청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기자회견
6/19(월) 10: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콘티넨탈 노조파괴 분쇄
'시즌2' 문화제
6/19(월) 18:00 콘티넨탈 정문 앞
- 지부 총파업 조직화 현장순회
6/20(화) 유성-엔텍-코스모링크
6/21(수) 한온시스템
6/22(목) 이레오토모티브-코스파-JCC
6/23(금) 대한이연-보쉬